

## Hospital medicine in Korea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입원전담진료센터 / 종합내과

김 낙 현

“한국형 호스피탈리스트/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병동에 상주하며 환자의 입원 유지와 퇴원을 위한 의학적 관리와 진료를 전담하여 직접 제공하는 전문의로 정의한다. 우리나라에 입원의학이 처음 도입된 것은 이런 정의를 만족하는 입원전담전문의가 처음 “호스피탈리스트”라는 직명으로 채용되기 시작한 2015년부터라고 볼 수 있고, 이후 5년째를 맞고 있다.

2019년 현재 30개 의료기관에서 140명 이상의 내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하여 전담병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짧은 시간동안 이 정도의 규모로 확대가 가능했던 것은 정부 주도 사업이 큰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내과학회 중심의 민간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1단계, 2017년 5월부터 12월까지 2단계에 걸친 보건복지부 주관의 시범사업이 진행되면서, 입원전담전문의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고, 전문인력 고용에 따른 비용도 보험재정에서 일부 보전하여 제도의 안정화를 모색하였다.

병원별로 필요한 진료인력의 역할이 상이하여 입원전담전문의 근무형태는 다양한데, 내과 입원전담전문의들은 대부분 분과병상, 급성기병상, 또는 일반통합병상에서 입원환자 진료를 담당한다. 각각의 운영형태에 따라 입원전담전문의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다르고, 기존 의료진과 역할에 대한 인식도 달라서 아직은 각각의 병원에서 충분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공의 정원감축정책과 전공의수련환경안전법의 시행으로 전공의들이 담당하는 진료량이 감소하면서 입원환자 진료의 공백이 발생하여 새로운 진료인력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고, 더불어 입원환자 안전 증진과 입원진료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높아진 상황이라, 입원전담전문의들이 전문의로서 역량을 발휘하여 안정적으로 최선의 입원환자 진료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하여 다방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어 우리나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와 입원의학의 발전이 기대된다.